추밀공파종회 제22차 정기총회

서울 장충동 자유총연맹회관에 70여 대의원 모여

▲추밀공종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다

안동권씨추밀공파종회樞密公派宗會가 2010년 12월 22일 그 22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실은 종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대의원에게만 참석과 의결권이 부여된다는 설이 있어 일반 후손종원에게 개방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정확히 말해 대의원총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날 11시에 서울 중구 장충동 2가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회관 2층 연회장에 모인 대의원은 70여 명이었다. 권영빈權寧斌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 의례가 이루어지고 권혁승權赫昇 회장이 개회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권영빈 사무국장이 내빈과 각지파종회장 및 집행부 임원을 소개하였다.

사무국장이 경과 보고와 결산 보고를 하고 권정헌權正軒 감사가 감사 보고를 통해 회계 출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금년의 총회는 특별히 이슈가 될만한 사안이 없어 의사가 신속히 진행되었다. 공식 회의를 마치고 뷔페식 점심식사를 하면서 담소중에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는 중에 중앙종친회 사무처장인 권경석權景晳 부회장이 공지사항으로서, 중앙종친회가 강서구 신정동의 회관 건물과 김포의 낭중공 위답을 매각해 동대문구 제기동에 새 회관을 구입한 경위와, 새 회관 건물에 중앙종친회 사무실은 입주할 사정이 안되어 인접한 타건물의 2층을 임대하여 들어가게 된 현황을 설명하였다.

한편 화산부원군종중측에서 비공식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화산부원군의 묘산을 할양받아 추밀공 · 충헌공 양세의 단소를 봉설한 처지에서, 추밀공종회가 화산부원군 후손과 종중을 경원 내지 백안시하니 유감스럽다는 요지였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의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진 · 글 權炳逸>

화산부원군종회 임시 임원총회

신구회장 이취임 및 결산안 등 처리

▲화산부원군종회의 임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 권정택 회장이 취임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밀공파 정헌공계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17제世 복復 강계도도절제사江界道都節制使 증우의정贈右議政)종회의 임시 임원총회가 2010년 12월 18일 토요일 11시에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564-2 평창빌딩에 있는 전임회장 권진택權晉澤씨의 사무실에서 열렸다. 화산부원군의 묘소는 경기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현암玄巖의 임진강 북안 군사보호지역 민통선 안에 소재하며, 추밀공 · 충헌공 부자 양선대의 단소가 바로 그 후록에 봉설되어 있는 곳이다. 임시 임원총회라 한 것은 이 종회에 따로 정기총회가 없고 매년 추석후 일요일을 정일로 하는 부원군의 추향일을 총회 기능의 회의로 해오는 게 관행이고, 종회의 실행 안건 처리는 이 회의에서 위임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므로 사실상의 총회가 이 임원회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시라 한 것은 지난번 향사시 총회에서 임원이 개선되어 아직 신구회장간의 업무 인수인계와 이취임이 안 이루어져 이를 위해 특별히 소집한 때문이었다. 참석자는 18인, 위임장으로 대신한 임원이 5인이었다.

전임 부회장으로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권정택權貞澤씨의 사회로 개회되어 안동의 시조 태사공 묘소 쪽을 향한 요배遙拜와 개회 의례를 행하고 이어 권정안權貞顔 총무에 의한 경과 보고와 결산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권태균權泰均 감사가 ' 금년 2010년도에 화산부원군종중에서 역사적이라 할 대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규모에 비해 종중 재정으로 집행한 것이 크지 않아 감사에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다 '는 요지의 감사 보고를 하였다. 결산을 마치고 신구회장이 공식 이취임을 하였다.

권진택 전회장은 이임사에서 ' 어언 4년 세월이 흘러 임기를 무사히 넘기고 유능한 후임자에게 종무의 인수인계도 마치게 되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유사 여러분의 도움으로 임기 동안 난제이던 좌랑공 · 부정공 양세 묘소를 이장하고 5백년 숙원이던 화산부원군 묘도의 신도비까지 수립하고 나니 기력도 소진하고 노쇠하여 더 일을 하래도 할 도리가 없고, 또한 종중에서 더 이상 내 손으로 할 일도 없어졌다. 후임으로 취임하는 정택씨는 그동안 부회장으로서 사실상 종무를 주선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회장이라 하겠다. 종사에 항상 창조적이고 무엇보다 열의가 남다른 분인만큼 종회를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하였다.

권정택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말로 ' 오늘 마음이 좀 무겁고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특히 인화에 능력이 될지 걱정이다. 역대로 이 종중을 이끌어오신 이도홍道공, 이현홍鉉공, 그리고 전임 진택 회장님의 업적에 누가 가지 않게 노력하겠다. 10여년 동안 어른들 따라다니며 뒤에서 배우고 해왔지만 미숙한 게 너무 많다. 전임 회장님께서 큰일을 다 하고 가시지만 뒤에 남은 후임에게 또한 남은 일이 태산이다. 신도비가 웅비로 섰는데 거기에 비각을 세우는 또하나의 큰 역사는 후임자의 몫이다. 그리고 전임회장께서 추진을 발의해 놓으신 상태인 화산부원군 파보 발간의 대역사도 성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화산부원군 묘역하 종토 중 우선 개간복답이 가능한 3천여 평을, 군협의 등을 통해 개간하여 수익성 토지화하는 일도 급선무의 하나이다. 분골쇄신의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다. 성원과 협조를 앙망한다 ' 하였다.

<화산부원군종회 제공>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 · 값 1,3000원 · 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 807호 우110-044
전화 02) 734-3085 · 732-9139 / 전송 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